

채란농가, 질병발생과 계란유통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

- 홍 보 부 -

본 설문조사는 IMF 이후 소비감소와 생산비 상승, 각종 금융비용상승 증가로 많은 채란농가에서 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경제위기가 채란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채란업자들이 채란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코자 실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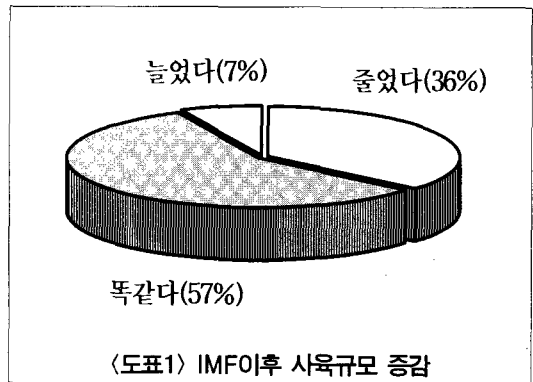
설문조사 방법은 전국채란양계인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양계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84명이 응답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신뢰도면에 있어 유의하다고 보고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 편집자주 -

1. IMF 이후 사육규모 증감을 묻는 질문에는 (1)줄었다(36%), (2)똑같다(57%), (3)늘었다(7%)로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IMF 영향으로 현금확보가 어려워 사육수수를 줄인 농가는 36%이고, 예상과 달리 57%의 농가가 사육 규모에 변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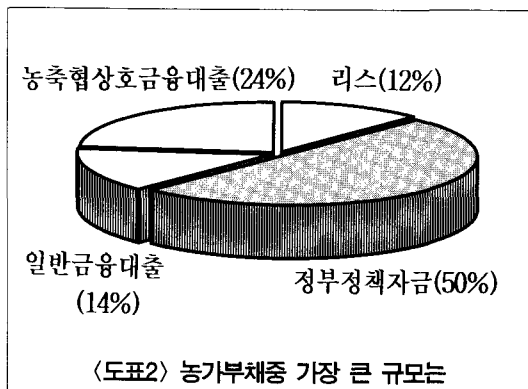
사육수수를 늘린 7%의 농가가 사육규모를 늘린 것은 농가소득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규모

를 늘려 감소한 소득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농가 부채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에 대한 질문에서는 (1)정부정책자금(50%), (2)리스료(12%), (3)일반금융대출(14%), (4)농·축협상호금융대출(24%)로 답을 하였는데 시설 자동화를 한 농가의 경우 자동화시설을 갖출 때 정부정책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권 일반대출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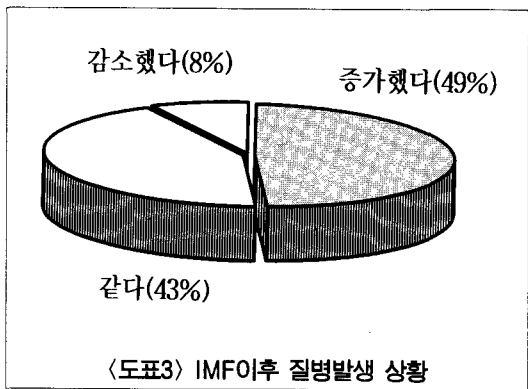
채란농가가 안고 있는 부채중에서 정부정책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답변한



사람이 50%에 이르렀고, 다른 금융기관 보다 비교적 금리가 낮은 농·축협상호금융대출을 받은 농가가 24%로 부채 중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리스로 인해 부채액이 커졌다고 답변한 12%의 농가는 전체 농가중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만 농가당 부채증가액으로 볼 때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3. 금년의 질병발생은 예년에 비하여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1)증가했다(49%), (2)같다(43%), (3)감소했다(8%)로 답변하였다.



예년에 비하여 질병이 증가하였다는 농장이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어 질병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품질이 저하된 값싼 사료를 사용했거나 약품비 조달이 어려워 제때에 백신을 투약하지 않고, 농장주가 운영자금 확보에만 치우치다 보니 사양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대부분 경영난과 관련이 많았다.

주 발생 질병은 가금티푸스, 대장균증, IB 등으로 세균성, 바이러스성을 가리지 않고 발병이 된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방역을 하지 않는 농장에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다. 질병이 감소했다는 농가는 6%에 불과해 IMF 이후 질병피해에 시달린 농가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사료비 지급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1)외상구매(31%), (2)현금구매(33%), (3)선입금구매(6%), (4)외상+현금(30%)으로 응답하였다.

외환위기 초반에 사료현금구매가 큰 폭으로 확산되던 것과는 달리 현금구매는 33%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상구매가 31%로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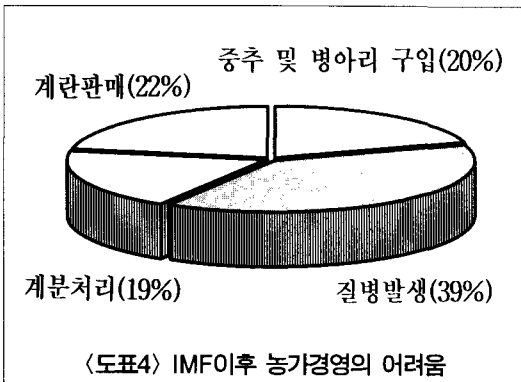
이는 IMF 이후 현금 구입이라는 거래형태가 환율인하, 사료업체의 GSM-102 자금 유입과 국제곡물가격 하락으로 사료가격 하락과, 양계산물 소비감소로 인한 사료소비량 감소로 사료소비가 위축되어 이를 만회하고자 사료업체가 농가 확보차원에서 외상사료를 늘린 결과로 보여진다.

사료대금 지급을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일부는 외상 거래한다는 농가가 30%로 어려워진 농장 사정과 사료회사 사정을 서로 인정하

는 대금지불이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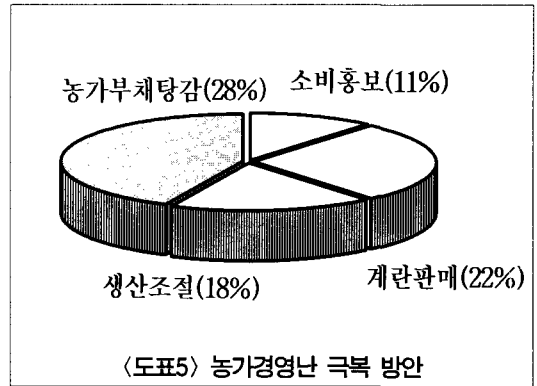
선입금구매를 한다는 6%의 농가는 건실한 재정구조를 유지한 농가로 1번 항목중 사육규모를 늘린 7%의 농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5. IMF이후 농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1)중추 및 병아리 구입(20%), (2)질병발생(39%), (3)계분처리(19%), (4)계란판매(22%)로 응답하였다.



질병발생을 농가경영을 어렵게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3번 항목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년에 비하여 질병 발생이 49%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계란가격이 생산비선 이상에서 거러낸 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었으나 질병으로 폐사율이 높고 육성비 부담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계분처리는 19%, 계란판매는 22%의 채란농가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점이라고 답변하였고, 20%농가에서 중추 및 병아리 구입으로 경영에 차질이 있다고 하였다.

6. 농가경영난 극복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1)소비홍보(11%),



(2)농가부채탕감(28%), (3)생산조절(18%), (4)유통개선(43%)이라고 조사되었다.

농가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유통개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43%로 지배적이었는데 여전히 덩핑을 일삼는 상인들에 의해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등 계란유통 시장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농가부채탕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28%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1%로 올 연초 소비홍보를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했던 업계분위기가 산물가격 상승으로 다소 퇴색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어느 응답자에 의하면 계란가격 등락 변화와 채란업자의 소비홍보의지 변화는 같이 움직인다는 의견을 기술해 주기도 해 계란가격이 상승하면 소비홍보는 거론하지 않고 계란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고 체화되면 생산조절과 더불어 소비홍보는 다시 거론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보여진다.

생산조절로 경영난을 극복하자는 의견은 18%의 농가만이 제기한 것으로 볼 때 유통개선과 농가부채 탕감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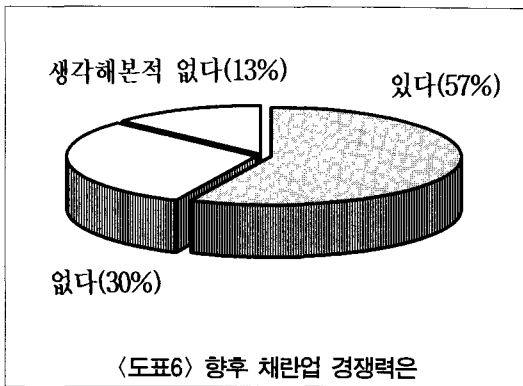
7. IMF 이후 농가소득 증감을 묻는 질문에는 (1)줄었다.(81%), (2)똑같다.(17%), (3)증가하였다.(2%)고 답변하였다.

조사한 농가중 IMF전과 농가소득이 똑같은 농가는 17%,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농가는 81%로 각각 분석되었다.

농가 소득이 줄었다는 81%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 계란판매시 할인폭 증가, 후장기 제도의 병폐, 정책자금상환 부담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답한 2%의 농가는 시설자동화를 하지 않았거나, 시설 투자를 했다 하라도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와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금융비용지출이 없는 농가로 추정이 되며,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여 질병 피해가 적은 농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 향후 채란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1)있다(57%), (2)없다(30%), (3)생각해 본 적 없다(13%)로 집계되었다.



채란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답한 57%의 채란업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때는 타 식품에 비하여 계란은 가격

이 저렴하므로 소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우려했던 계란(식란)수입이 개방이후 거의 들어오지 못한 점도 의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쟁력이 없다고 대답한 30% 채란업자들은 추석 이후로 소비가 안되고 있고, 대부분의 농가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어 생산비를 줄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각종 질병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민감해지고 있어 생산비선 이상의 계란가격을 유지하면서 계란소비량을 증가시킬 확률이 적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13%는 경쟁력에 관계없이 채란업을 계속하거나, 세계화에 대한 개념없이 미래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무관심하게 채란업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IMF 이후 채란업계는 외형적으로 사유규모를 줄인 농가가 36%가 되었고, 농가경영을 어렵게 하는 질병 발병은 예년에 비해 49%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농가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유통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농가부채중 정부정책자금상환과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농가중 IMF이후 81%가 농가소득이 줄었고, 17%농가가 현상유지를 하였다고 답변하여 농가 부채로 인해 농가소득이 증대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란업자 중 절반이상이 채란업을 향후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당분간 구조조정을 거친 후 의지력이 강한 농가들이 경영정상화의 길을 걸으며 재편되어갈 것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양계